

뉴멕시코주
한인들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7/8월호
2020년

Website: voice.kumcabq.com

President Trump and The First Lady Participate in a Wreath Laying Ceremony at the Korean War Memorial (Photo credit:White House)



한국전쟁70주년
트럼프대통령
한국전쟁참전기념비 헌화

관련기사: 20페이지

CONTENTS

한인회 한인회장/이사장 인삿말:2	칼럼 에티오피아선교파송 김기천 :14
지역사회소식 주지사발표/코로나 현황:3	수필 다시 일어서는 힘 이정길 :15
LA영사관 소식 총영사부임인사 박경재:4	서신 알버커키형제여러분께 나정용 :16
지역소식 나바호족에게 마스크지원:4	수필 꿈짜마 나정자: 17
한인회/한국 코로나지원/ 남북연락사무소폭파: 5	영어상식 영어이야기 9 이상목: 18
미국소식 스페이스X 통신위성/우주선 :6	한국전70주년 김일성의 아이들 : 19
지역소식 아마존 센터세운다/공군 참모총장: 7	한국전70주년 트럼프 대통령 헌화 :20
지역소식 샌디아연구소 핵폭탄시험 :8	한국전70주년 한국전쟁의 두 초상 : 21
지역소식 부고:박영교 권사 :9	교회소식 이사 가신분:24
지역소식 윌슨 헐리전시/한국학교소식:10	광고 뉴멕시코주 한인교회 안내 : 25
부고 안점순집사/옛세이 수상 / NIH 연수소개:11	광고 한인 업소 안내:26-28

보고싶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뉴멕시코 동포여러분, 보고싶은 얼굴들이 떠 오르면서
지난 3-4개월전을 기억하면서 눈을 감아봅니다.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환경속에서 만났던 얼굴들과 눈 마주치면서
웃고 기뻐했던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COVID-19로 초래된
오늘의 현실속에서, 한 도시에서의 생활속에 있으면서 만날 수
없는 안타까움은 저희들 가슴을 답답하게 하며 저희들 앞에
펼쳐지는 내일을 예측할수 없는 어둠속으로 계속 갈수 밖에 없는
저희들은 불안합니다.

하지만 보고싶은 얼굴들을 그리며 그들을 위해 작은 기도를
올리는 기도 후의 평강은 너무나 시원합니다. 마치 하이킹을
하면서 덥고 땀날때, 우리의 얼굴에 불어 오는 산속의 시원한
바람이 저희 가슴속 까지도 시원하고 기쁨이 넘치는 순간을 맞볼
수 있게 해주며 희망을 가져다 주는 그 순간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가슴이 서늘해지면 천천히 숨을 내 쉬어봅니다.

이러한 시기에 더욱더 저희들에게 주위에서 돌변하는 염려적인
사태를 여러분들과 나누어야 하는 아픔이 생겼습니다.

최근 미국전역에서 저희 아시안을 향해 혐오범죄증가가 있고
저희 한인 동포 여러분들이 여러차례 피해를 보시어 전 미국전역

민명희

뉴멕시코한인회 회장



한인회에서 관심과 그 대처방법을 알려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있을때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되지않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뉴멕시코주 한인동포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제일
중요하게 서로 보살피 드릴 의무가 저희들 모두에게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모든분들이 읽어보시고 우리 함께뭉쳐 우리
한인동포들을 위해 서로서로 보호합시다.

저희들 모두 같은 COVID-19 Crisis 환경속 생활 가운데
지혜와 사랑을 한데모으고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힘을 합치는
날들을 기대하면서 한분 한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신
하루하루의 연속이되시길 기도드립니다.

한인 동포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한인회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뉴멕시코주 동포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멕시코주 동포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8대 한인회 이사회 장을 맡고 있는 박찬영 입니다.

코로나-19 라는 사상 초유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혼란속에도 굳굳이 위기를 극복해 가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과 사회속의 경제적 약자 지원, 지역사회의 응급병원
후원 등 구호지원 활동에 적극 애쓰고 계신 한인회 임원진 및
이사님 들께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전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야기된 사회적,
경제적 활동의 제한 및 중단에 따른 폐해의 휴유증과 이와 관련된
불안 요소 극복은 보다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대책과 적응을 요구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한인회와 동포 여러분 모두를 중심으로 지혜와
역량을 모으고 어려울때 서로를 돕고 위협하는 외부세력에
결연히 맞서는 한민족 특유의 단결력과 공동체 의식을 발휘함

박찬영

뉴멕시코한인회 이사장



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맞이하게 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해결에 의연하게 대처 함으로써 앞으로 변화될 환경에
쉽게 적응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뉴멕시코주 한인 동포 여러분 지금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임은 분명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으로 지혜롭고 강인한
정신을 가진 민족답게 이 또한 잘 헤쳐 나아갈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위에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동포분들이 계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뉴멕시코주 한인회가 도움을 드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동포 가족 모두가 건강히 지내시길 기원 합니다.
감사 합니다.

2020년 6월 30일 ■

주지사 발표 마스크 사용 의무화

뉴멕시코주 코로나바이러스 현황



뉴멕시코 전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환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셸 루한 그리샴 주지사는 수요일 (7월1일) 미 행정부가 공공장소에서 안면 마스크 사용 명령을 강력히 시행하기 시작할 것이며 타주 지역에서 뉴멕시코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제한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7월 15일까지 연장된 개정 공중보건명령에 포함된 주지사의 단속은 뉴멕시코 주의 COVID-19 사망자 수가 500명에 도달한 데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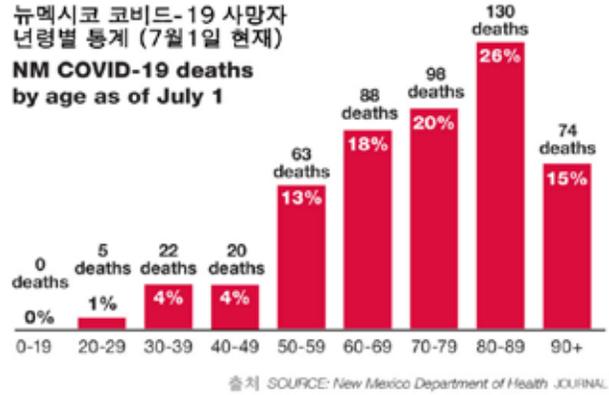
루한 그리샴은 이날 온라인에 방송된 라운드하우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다시 감염통제 커브를 평평하게 하고 의료 종사자들과 뉴멕시코인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비즈니스를 열 수 없다”고 말했다.

뉴멕시코의 COVID-19 감염률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한 6월 10일 전후까지 감소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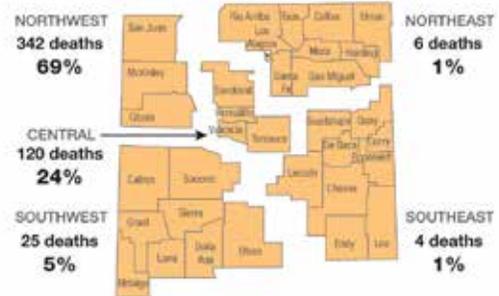
데이비드 스크라세 휴먼서비스 장관은 현재 주정부의 전송률이 1.20까지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즉, 감염자 개개인이 평균적으로 1.20명의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것이라는 뜻이다. 2주 전에는 0.87에 불과했고 지난주에는 1.12에 그쳤다.

주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주 동안 20대 사람들이 연령대별 신규 환자 그룹을 가장 많이 차지했고, 30대는 두 번째로 많은 환자 그룹을 차지했다. 이 두 연령대를 합치면 뉴멕시코의 최근 신규 확진자의 약 47%를 차지한다고 주 관리들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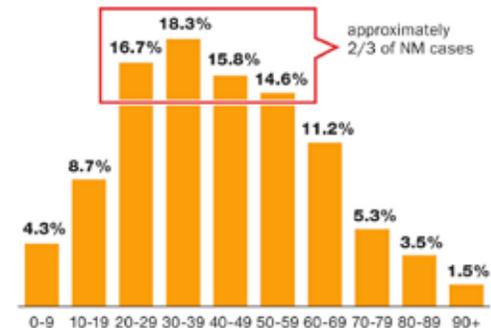
주지사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요구 사항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100달러의 벌금을 물 수도 있으며, 보건질서를 어기는 사업체들은 경범죄 혐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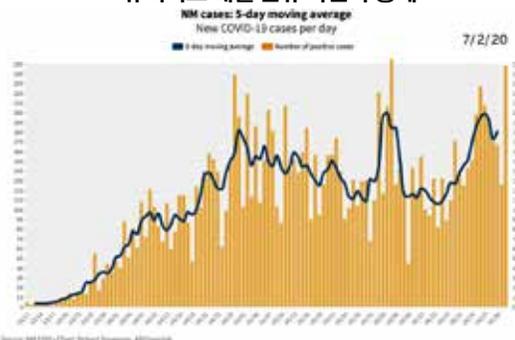
코비드-19 사망자 지역별 통계
Number of COVID-19 deaths and percentages of state totals by public health region as of June 30



코비드-19 확진자 연령별 통계(6월24일 기준)
COVID-19 cases by age as of June 24



뉴멕시코 매일 신규 확진자 통계



LA 총영사부임 인사



안녕하십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총영사 박경재입니다.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가주, 네바다주, 아리조나주와 뉴멕시코주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남가주는 우리 선조들의 독립운동의 요람으로서 도산 안창호 선생 등 많은 애국지사들께서 활발히 활동하신 터전이자 미주한인 이민사 100여년의 발자취가 생생히 남아있는 역사적인 곳으로 우리나라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남가주를 비롯하여 네바다주, 아리조나주, 뉴멕시코주에는 6.25전쟁 당시 많은 희생을 치루고 공을 세우신 참전용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레인 빅토리오’, ‘우정의 종각’ 등 굳건한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기념물들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맺은 인연을 기반으로 현재 한국과 이들 지역은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상호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가주와 네바다주, 아리조나주, 뉴멕시코주에 계시는 70만 한인동포들께서도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구성원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한-미 교류 증진에 앞장서 왔습니다.

최근에도 코로나19위기 대응을 위해 LA시에서 한국산 진단키트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영화 산업의 본고장인 할리우드에서 우리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4관왕을 차지하여 한류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남가주와 네바다주, 아리조나주, 뉴멕시코주에는 첨단산업 분야의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고, 매년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으로, 운전면허 상호 인정, 공립학교 교과과정에 한국사 포함 등 다방면에서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한인동포 여러분께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한인동포사회 간 협력을 이어 간다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6·25참전

네바호족에게 마스크 지원

한국정부가 6·25전쟁에 참전한 미국 원주민 네바호족에게 마스크 1만장을 지원한다.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는 18일 “미국 원주민 네바호족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LA 총영사관과 애리조나 한인회, 한인선교사회 등의 협조를 받아 방역물품을 전달할 방침이다.

네바호족은 800여명이 6·25전쟁에 참전했고, 이중 약 130명이 생존해있는 것으로 국가보훈처는 추산했다.미국 인디언 원주민 네바호 자치구의 조너선 네즈 대표가 6월 3일 박경재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강선화 애리조나 한인회장 등과 화상 면담을 했다.

네즈 대표는 이날 면담에서 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물품을 전달해온 데 감사의 뜻을 밝혔다. 2020.6.4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총영사관도 지역 의료기관 및 한인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물품 지원, 한인 동포 소상공인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보다 밝은 내일을 꿈꾸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총영사 박 경 재

한인회 소식

뉴멕시코 한인회 COVID-19 지원활동

한인회에서는 지난 5월26일 5차 지역사회및 교민지원활동을 실시했습니다.

1. 뉴멕시코주 Grant (알버커키에서 서쪽으로 80마일)에 사시는 한인 독고노인에게 CARE KIT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2. 뉴멕시코주 Gallup (알버커키에서 서쪽 140마일)에 인디언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두 수녀님과 함께 켈럽근교의 인디언마을에 방문해 마스크 200여장을 인디언 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당시의 Gallup은 COVID-19 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진입하는 도로조차 폐쇄시켜놓은 상황이었습니다.

현지에서 봉사하시고 계시는 두수녀님과 한국인 봉사자분들의 안내로 켈럽 외곽지역에서 만나 인디언 마을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수녀님들과 봉사자분들은 손수 마스크를 제작하여 인디언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지만 현지에서는 마스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알버커키에 나오시지못하는 한인수녀님들과 봉사자분을 위해 식료품을 대신 구매해서 전달해드리고 마스크를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현지에 도착해보니 상황이 너무 열악하고 마스크가 턱없이 모자라 한인회장과 임원들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마스크도 모두 전해주었습니다.

눈물로 고마움을 전하는 현지 인디언 가족들의 배움을 받고 지원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한국 소식

북한, 개성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지난 6월 16일 14시 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한국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파괴됐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예고한지 사흘 만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4.27 판문점 선언의 상징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됨으로써 남북관계 위기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김여정은 앞서 지난 6월 13일 담화에서 “멀지 않아 쓸모없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한국 청와대가 공개한 폭파 당시 영상에 따르면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인 연락사무소 청사는 폭발한 지 3~4초 만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렸다.

이로써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개성에 문을 연 연락사무소가 개소 19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

연락사무소는 한국 정부가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회사무소로 사용하던 건물을 재료비 34억9천만 원 등 총 97억8천만 원을 들여 만들어졌었다.



스페이스X, 한국군 통신위성 발사예정

지난 5월 최초의 민간 유인우주선 발사에 성공한 미국의 민간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가 오는 7월 한국군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를 발사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나시스 2호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오르면 한국 군은 최초의 군 전용위성을 보유하게 된다.

6월11일 항공우주 전문매체 스페이스플라이트나우(Spaceflight Now) 등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미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의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아나시스 2호 발사 준비에 착수했다.

지난 8일 프랑스 에어버스사 공장에서 제작돼 케네디우주센터로 운송된 아나시스 2호는 팰컨9 로켓에 실려 내달 발사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페이스X 관련 소식을 전하는 테슬라리더는 “아나시스 2호의 발사 예정일은 7월 둘째주로 잠정 결정됐다”고 전했다.

아나시스 2호는 약 3만5400km 높이 적도 상공에서 자체 추진 시스템을 이용해 정지 궤도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스페이스플라이트나우는 전했다.

아나시스 2호는 한국군과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맺은 절충교역에 의해 제작됐다. 절충교역은 무기 판매국이 구매국에 기술 이전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한국군은 차세대 전투기로 F-35A 스텔스 전투기를 택했고, 록히드마틴은 이에 군 통신위성 1기를 제공하기로 했다. 록히드마틴은 그 뒤 에어버스와 군 통신위성 제조를 위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에어버스는 자사 통신위성 ‘유로스타 E3000’을 기반으로 아나시스 2호를 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나시스 2호의 자세한 성능과 제원은 미공개 상태다.

스페이스 X, 최초의 민간 유인 우주선 발사 성공



美 민간 우주개발기업 스페이스엑스가 5월30일 오후 3시22분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곤’ 발사에 성공했다. ‘크루 드래곤’은 다음날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도킹할 예정이다. 스페이스엑스는 이날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우주선 ‘크루 드래곤’이 팰컨9 로켓에 탑재돼 발사되는 장면을 생중계했다. 이날 발사는 플로리다 소재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진행됐다. 우주선에는 미 항공우주국(NASA) 소속 우주비행사 로버트 벤킨, 더글러스 헐리가 탑승했다. 로켓은 발사 직후 주 엔진 분리와 2단계 엔진 점화, 우주정거장 진입을 위한 안정 궤도 진입에도 성공했다. 미국이 자국의 우주선을 이용해 국제우주정거장에 우주인을 보내는 것은 우주왕복선 퇴역 이후 9년만에 처음이다. 미국은 그동안 러시아 우주선에 의존해 ISS로 우주인을 보내왔는데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곤’ 발사 성공으로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고 우주비행사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추후 소식)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5월 31일 우주선 크루 드래건이 발사후 19 시간 만에 국제우주정거장(ISS)과 도킹에 성공, 크루 드래건에 탑승한 우주인 더글러스 헐리와 밥 벤컨이 ISS에 무사히 들어갔다.

Acupuncture & Herbs Pain Clinic
Holistic & Alternative Medicine



장상순 한의원
Dr Sangsoon Chang
DOM, DSOM, Dipl OM, Dipl Ch, Lac

보험회사 Authorized Providers:
Cigna, Presbyterian, Multiplan, Optum, United healthcare, New mexico health connection. Out of net work, Molina.

2617 Juan Tabo NE #B
Albuquerque
New Mexico 87112
www.drchang505.com

505-255-0878
505-710-7504
sangsoonc@gmail.com

알버커키에 아마존 대규모 주문 처리 센터 세운다



아마존이 뉴 멕시코에 들어 온다. 온라인 쇼핑 대기업체인 아마존은 이미 알버커키에 대규모 주문 처리 센터 건설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앞으로 약 1,000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버나리요(Bernalillo)카운티 관계자는 건평 465,000 평방 피트 건평에 5층으로 지을 주문 처리 센터를 위한 준비 공사를 이미 시작했다고 밝혔다.(총면적은 Walmart Supercenter 13개정도에 비교될 것이라고 한다)

버나리요 카운티는 I-40 와 Atrisco Vista Blvd.에 건설될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도로와 기간시설을 위해 650 만 달러를 승인했다. 카운티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이정도 규모의 주문처리 센터는 일반적으로 1,000-1,500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한다. 아마존은 이곳의 공사가 2021 년 후반기에 완공되어 센터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카운티 관계자들은 센터가 들어설 지역은 Upper Petroglyphs Industrial Park 로 알려져 있는데 이곳에 있는 FedEx, Shamrock Farms, Tempur-Pedic업체들과 아마존 센터가 서로 이웃이 될것이라고 한다. 뉴 멕시코는 아마존의 주문 처리 센터가 없었으므로 현재까지 피닉스와 덴버의 두 센터 사이에 공백지역이었는데 이를 채우게 되었다고 한다.

카운티의 O'Malley는 센터가 들어설 위치가 Big-I에서 몇 분 거리에 있고 더블 이글 공항(Double Eagle Airport)에서도 몇 분 거리에 있다는 좋은 지리적 여건이 아마존의 인기를 끌었으며 이 작은 더블 이글 공항이 머지않아 아마존에 소속된 많은 비행기가 집결하는 본거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리오그랜데 강 서쪽 지역에 주택은 많으나 일자리는 많지 않은 불균형한 점이 새로운 기업의 진출로 말미암아 이 지역 사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O'Malley 는 말했다.

직원에 대한 혜택으로는 최대 20주의 유급 산모 및 육아 유급 휴가를 포함하여 시간당 15 달러의 임금과 Amazon 정 직원에게는 풀 메디컬, 비전 및 치과 보험은 물론 첫날부터 50 % 에 준하는 401 (k)의 보험 혜택이 있다고 한다.

기사출처:KRQE, Brittany Bade May 26, 2020

군산공군기지 전투비행단 단장이었던 찰스 브라운, 미 공군 참모총장으로 승진

미군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참모총장이 탄생했다. 찰스 브라운 전 미국 태평양공군사령관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에 지명했었는데 미 연방 상원이 지난 6월9일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승인했다. 흑인이 미군 병과의 참모총장에 오른 건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인준안 상원 표결이 있던 날이 공교롭게도 경찰의 강압 진압으로 목숨을 잃은 흑인 조지 플로이드 씨의 장례식이 그의 고향 휴스턴에서 치러진 날이기도 해서 눈길을 끈 뉴스가 되었다.

브라운 장군은 플로이드 씨 사건에 대한 심경을 지난 6월 5일 공군 영상 메시지를 통해 밝힌 적이 있다. 그가 공군참모총장 지명을 받은 것은 “무거운 짐도 수반되는 일”이라고 하면서 공군 장병에게 있을 수 있는 인종차별관련 상황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바라고 있다며, 이를 통해 모든 공군 장병이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57살인 찰스 브라운 장군의 경력을 보면 텍사스 러벅에 있는 텍사스공과대학의 ROTC출신으로 공군경력이 시작한 이후 35년 이상 군에 몸 담았다. F-16 전투기 조종사로 총 3천 시간에 가까운 비행 시간과 130시간의 전투 시간을 보유하고 있다. 두 차례 한국에서 근무하기도 했는데 1987년에는 F-16 전투기 조종사로, 2007년에는 제8전투비행단 단장으로 군산기지에서 근무했다. 2018년 7월부터는 태평양 공군 사령관으로 복무하면서 미국과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공군 활동을 이끌어 왔다.

브라운 장군의 인준안 통과에 대한 반응을 보면, 짐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브라운 장군이 “용감하고 단결을 가져올, 영감을 주는 지도자”라고 평가했고 마이크 멀린 전 미국 합참의장은 브라운 장군의 인준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큰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미군 지도부에 흑인 인사가 줄어드는 데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브라운 장군 외에 군 최고위급에 오른 흑인은 1989년 합참의장에 오른 폴린 파월 전 국무부 장관이 유일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의 역대 최초 아프리카계 군 총장으로 찰스 브라운 장군을 임명하기로 한 나의 결정이 상원에서 승인받았다” 며 “미국에 있어 역사적인 날!”이라고 적었다. 이어 “애국자이자 훌륭한 지도자인 브라운 장군과 더욱 긴밀하게 일하게 되어 흥분된다”고 덧붙였다.

샌디아국립연구소, 신형 저위력핵폭탄 투하 시험 성공... “북한 지하시설 타격 효과적”



VOA 뉴스 특종이 2020년 8월 10일

미국의 핵무기 개발을 담당하는 샌디아국립연구소가 F-15 전투기의 저위력 전술 핵폭탄 투하 성능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F-35 등 차세대 전투기와 전략폭격기에도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북한 지하시설도 목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공군의 F-15E 스트라이크이글 전투기가 비행 도중 선회하더니 아래에서 유선형 물체가 분리됩니다. 자유낙하하는 폭탄은 수 초 만에 땅에 내리박힙니다.

샌디아국립연구소 “B61-12 핵폭탄 투하 최종실험 완료” “저고도, 고고도에서 각각 투하...F-15E 호환성 완벽 입증”

미국의 3대 핵무기 개발기관인 샌디아국립연구소는 8일 “F-15E 스트라이크이글 전투기의 B61-12 핵폭탄 투하 최종 성능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개량형 저위력 전술핵폭탄인 B61-12는 미국이 핵무기 현대화 계획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양산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실험은 핵탄두를 제거한 모형 B61-12 중력폭탄을 F-15E 2대를 동원해 실제 고고도와 저고도에서 각각 투하하는 방식으로, 네바다주 토노파 시험장에서 지난 3월 9일부터 4일 간 진행됐습니다.

고고도 실험의 경우 해발고도 7.62km (약 2만 5천 피트) 상공에서 모형 B61-12 중력폭탄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낙하 약 55초 뒤 마른 호수바닥 위로 꽂혀 12~15m (40~50피트) 높이의 사막 먼지를 일으켰다고 샌디아국립연구소는 밝혔습니다.

또 저고도 투하 실험은 F-15E가 해발고도 304m 상공에서 음속에 근접한 속도로 비행하면서 모형폭탄을 투하했는데, 사막 표면에 꽂히기까지 약 35초가 소요됐습니다.

샌디아국립연구소는 이번 실험이 미 공군 F-15스트라이크 이글과 B61-12 간 호환성을 입증하는 마지막 단계로서 완벽한 무기체계 성능을 증명하는데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스티븐 새뮤얼즈 샌디아국립연구소 B61-12체계 팀장은 “

프로그램 자체는 2010년에 시작됐지만 전투기 호환성 실험은 2013년부터 진행됐다”며 “지금까지 지상실험, 가상비행실험, 설계 등 준비태세를 증명하기 위한 작업이 선행됐다”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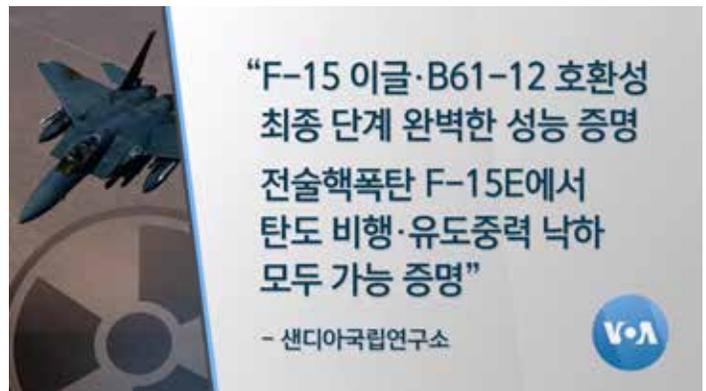
[녹취: 새뮤얼즈 팀장] “The B61-12 Program started in 2010. We really started the aircraft compatibility testing in 2013 with ground testing, test flight, modeling and simulation, flight simulation, all of those aspects were required to verify readiness.”



샌디아국립연구소 “탄도비행 투사, 유도중력 낙하 모두 입증” “향후 B-2 전폭기, F-35 스텔스기 호환성 실험도 진행”

샌디아국립연구소는 이번 실험으로 B61-12가 F15E에서 탄도비행 방식이나 유도중력 낙하용으로 모두 수행 가능한 것이 증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B-2전략폭격기와 F-16 C/D계열 전투기,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와의 호환성 실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동맹국의 전투기에도 실험을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전문가들은 미국과 핵무기공유협정을 맺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5개 동맹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터키)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61-12는 최대 50킬로톤의 폭발력을 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지하 깊은 곳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게 고안돼 일명 ‘핵 벙커버스터’로도 불립니다.

아울러 낙하산 대신 꼬리 날개를 부착해 목표를 향해 정확히 날아갈 수 있도록 했고, 기존 핵폭탄에는 없는 GPS 등 내부 유도체계를 장착해 정밀폭격이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특히 이번 실험에서 각각의 고도에 소요되는 시간을 제시한 것은 투하 뒤 전투기가 폭발에 휘말리지 않는 생환 최소요건을 충족했다는 의미입니다.

브루스 베넷 “북한 지하시설 타격셈법 반영…낙진 최소화”
에스퍼 장관, 북한주민 피해 최소화 타격방안 지난해 시사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9일 VOA에 이번 실험은 앞으로 북한의 지하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전력개발도 셈법에 반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It is probably the preferred weapon that you would use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underground facilities. Because it’s not going to generate near as much fallout. If you want to make sure that you’re taking out their nuclear weapon facilities, this should do it. ...If you have a specific objective, and they’re going to make hundreds of this weapon. so they would have enough to take out North Korean underground facilities if that is what they decided to do and cause relatively little fallout...”
메가톤 규모의 전략핵무기보다 폭발력이 작기 때문에 한국, 일본, 중국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낙진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정확도가 높아 복수의 북한 지하 핵시설을 원점 타격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는 분석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7월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한반도 위기 시 미군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시설을 재빨리 무력화시킬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북한 주민의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하면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저위력 핵폭탄의 셈법은 냉전 당시 상호확증파괴 개념에 따라 소련이 핵 전면전은 야기하지 않는 선에서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경우에 대비해 대칭적 보복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국지전 성격’으로 고안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이 모두 핵 역량을 고도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술핵은 대부분 폐기되거나 40년 이상 노후화가 진행됐으며, 진화하는 위협에 맞서 미국 대통령에게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2020.6.10)



<추가소식>

미 국방부는 최근에 와서 지난해부터 올해 사이에 진행한 F-35 A/B/C 3종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B61-12 투하시험 사진들도 여러장 공개했습니다. 위의 사진은 그중의 하나입니다.
(2020.6.22 theaviationist.com)

지역사회

부고

박건의 아버지 박영교 권사께서 노환으로 2020년 5월 20일 오후 8시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으므로 알려드립니다.
임종 추모 예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영상 예배로 대신합니다.)
(링크 <https://www.youtube.com/kumcabq/>)

박영교 권사 약력

- 1933년 4월 10일 전라북도 전주시 인후동에서 출생
- 1950년 전주 고등학교 졸업
- 1956년 전북대학교 국문과 졸업
- 한국에서 삼화 인쇄소에서 근무
- 1987년 미국으로 이민 뉴욕에 정착
- 2000년부터 뉴저지에서 세탁소 운영
- 2013년 11월 뉴멕시코 알버커키로 이주
- 2020년 5월 20일 오후 8시경에 87세 일기로 영면

박영교 권사님은 알버커키로 이사오신 후에 뉴멕시코를 사랑하고 알버커키 한인들을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권사로서 성실하게 주일 성수를 하셨지요. 지난 5월 7일부터 음식을 드시지 못해 8일 아침에 UNM 응급실에 입원하셨습니다. 이후로 건강이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모두가 집에 머물러야 하고 병원 면회도 할 수 없게 되면서 병원에 계시는 동안에 한국과 미국에 있는 가족들과 인터넷으로 영상 통화를 하시면서 임종을 준비하셨지요. 지난 19일(화) 아침 8시에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에서 영상으로 임종예배를 드리시고 오후 6시에 Genesis Daycare로 병상을 옮기셨습니다. 다음날인 20일 내내 수면 상태에 계시다가 오후 8시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윌슨 헐리: 현실의 풍요로움 전시

산타페에 있는 네드라 마테우치 갤러리에서 알버커키 화가 윌슨 헐리(Wilson Hurley, 1924~2008)의 작품을 전시한다. “윌슨헐리:현실의 풍요로움(Wilson Hurley: The Richness of Reality)”이란 제목으로 열리는 윌슨 헐리의 세 번째 전시회는 6월 27일부터 7월27일 까지 열리며 이 전시회에는 헐리의 유명한 서양화 풍경화뿐만 아니라 바다, 항공, 우주 그림 등도 전시되어 있다.



이 전시회에는 최근 UNM Press에서 출간한 책인 “윌슨 헐리의 삶과 예술(The Life and Art of Wilson Hurley: Celebrating the Richness of Reality)”이 함께 한다. 고인이 된 화가의 아내 로잘린 롱케 헐리가 쓴 남편 윌슨의 전기에는 군인이자 비행사, 변호사, 은행가, 작가, 예술가로서의 헐리의 삶의 여정이 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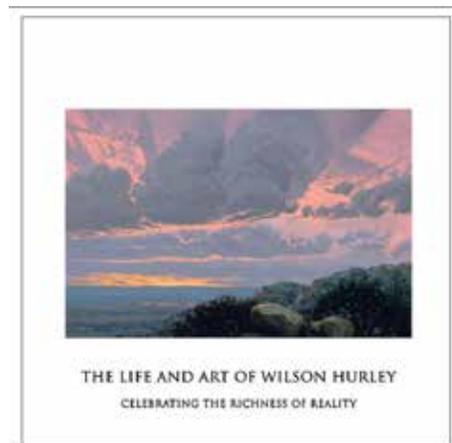
뉴멕시코 한국학교, 평통에서 주최한 통일골든벨 퀴즈대회

지난 6월 13일, 민주평통 오렌지샌디에고 협의회(회장 오득재)에서는 2020통일골든벨 퀴즈대회를 Covid-19이라는 비상사태를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2014년부터 시작된 이 대회는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차세대 자녀들에게 우리의 분단된 역사와 통일의식을 교육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오렌지샌디에고 협의회에 등록된 한국학교의 중, 고등학생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예상 문제는 사전에 제공되었다. 그동안 거리가 멀어 참석하기 어려웠던 뉴멕시코 한국학교 학생들도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어 5명(김규련, 김의련, 진수민, 한준희, 한서희)의 학생이 참석하였으며 총 12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박빙의 승부를 가졌다. 신영숙 민주평통 교육 담당 부회장은 “올해 통일골든벨퀴즈대회는 단순히 순위를 따져서 시상하는 것보다는 집에만 머물러야 할 우리 학생들이 가족들과 함께 예상 문제를 함께 풀어보며 조금 더 한국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우리의 역사를 알아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하였으며 민주평통 오렌지샌디에고 뉴멕시코 분회장을 맡은 조규자 회장도 “우리 뉴멕시코 한국학교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싶었는데 이 대회를 통해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좋은 기회가 되어 기쁘다”라며 참석한 학생들을 칭찬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통일에 관한 짧은 에세이를 제출한 김규련 학생이 특별상으로 입상하였다.

묘사되어 있다고 한다.

알버커키 공항안 Great Hall에 윌슨 헐리의 거대한 두개의 풍경화가 걸려져 있다. 해질무렵의 샌디아산과 알버커키 저녁노을 그림으로 제목은 La Cueva Sunset, East와 , La Cueva Sunset, West이다. 아마도 알버커키 시민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헐리의 그림일 것 같다.

전시회에 관한 상세한 점은 Nedra Matteucci Galleries의 웹사이트 <https://www.matteucci.com/>에서 알아볼 수 있다.





CUDDY & McCARTHY, LLP
Attorneys at Law
www.cuddymccarthy.com

우리 로펌은 1917년에 근간을 둔 다양한 분야의 법률대리를 담당하는 종합법률사무소로서 산타페와 알버커키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한 노영준(Jun Roh)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201 Third St. NW Suite 1300,
Albuquerque, NM 87102.
(505) 888-1335**



한인사회 소식

에세이 특별상 입상

한국이 통일 해야하는 이유

김규련

Desert Ridge Middle School (7th)



한국이 통일을 해야하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한국의 통일이 양국간의 경제를 부양할 것입니다. 남한의 부는 북한의 빈곤을 해소시켜 위대하고 균형잡힌 나라로 이끌 것입니다. 북한은 병원이 거의 없고 식량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한국인이 북한인보다 더 오래 사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연합하면 한국의 강한 경제가 모든 한국의 번영을 도울 것이며 곧 한국은 더 강한 경제를 가질 것이다.

둘째, 북한 사람들은 현재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거의 없으며 모든 것이 정부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우리가 통일한다면, 북한 주민들에게 음식과 건강 보험뿐만 아니라 또한 가장 중요한 자유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질 것입니다.

셋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군사훈련을 받아야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왜 이러한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옆에 같은 동포이자 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벌어질 때 대체할 수 있도록 훈련 중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한다면 원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군사 훈련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연합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가족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분단은 많은 가족을 갈라 놓았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전혀 모르는 쌍둥이를 오랫동안 잃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통일이 되면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통일이 되면 어떤 사람들은 80년이 지난 후에 남편이나 아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남은 행복을 가져옵니다. 한국의 통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부고

한국학교 이사님 최신옥씨의 자당(慈堂) 안점순 집사님께서 88세의 연세로 2020년 6월 8일에 소천 하셨습니다. 유족으로 최경옥, 승옥, 신옥, 호준,성준을 두고 가셨습니다.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교민의 정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뉴멕시코 한인회

학부생을 위한 국립보건원 NIH연수 프로그램 소개

최혜선

UNM



저는 금년에 University of New Mexico에서 심리학/ 화학 전공으로 학부 졸업 후 의과대학에 진학한 최혜선입니다. 향후 유아/ 청소년정신과를 전공할 계획입니다. 의대 본과 공부를 시작하기 전 신경과학 분야 연구 경험을 쌓고자 1년 동안 Rockville, Maryland에 소재한 국립보건원에 가서 연수할 예정입니다. 주변에 이 프로그램에 대하여 아시고자 하신 분들을 위하여 소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University of New Mexico의 학부 과정 BA/MD 프로그램 하에서 심리학과 화학을 전공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기초 의학 연구 참여를 많이 강조합니다. 2학년 때 부터 어느 분야의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연구처를 통하여 Undergraduate Pipeline Networks (UPN) 프로그램을 소개 받았습니다. 신청 후 연구 책임자 한 분을 저의 지도교수로 배정 받았습니다. 제가 배정된 연구실은 신경과학neuroscience 연구실이었습니다. 학부 과정 3, 4 학년 기간 동안 신경과학교실 연구실에서 연구에 참여하면서 신경과학 연구에 대한 경험과 관심을 쌓게 되었습니다. 4학년 1학기 부터는 국립보건원의 Intramural Research Training Award를 신청하였습니다

국립보건원 웹사이트에(www.training.nih.gov/programs/post-bac_irta)에 저의 이력서, 소개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원자가 각 연구 분야의 책임자를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연수를 허락 받아야 하기에 저는 제 관심분야인 신경과학 분야와 관련한 5곳의 연구실을 선정하고 각 연구실의 웹사이트에 소개한 연구 분야 및 최근의 발표 논문 등을 조사하고 공부한 후 연구실 별로 개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 곳 연구실에서 저의 연수를 허락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학부 과정 중 연구 경력은 짧았지만 지도교수님의 조언, 정보 그리고 추천이 연수를 승인 받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본 연수 프로그램을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께는, 학부 과정 중 연구실의 연구 활동에 참여하셔서 경험과 지식도 쌓고 지도교수의 조언과 추천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미시시피 주기 '남부 연합군 상징' 제거된다

VOA기자 오종수, 김현숙

6월29일에 VOA Korea에서 방영된 '아메리카나우'에서 일부 뉴스를 전제 소개합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시시피주가 주 깃발에서 남부연합군 상징을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시시피 주 깃발에서 남부연합군 상징을 없앤다고요?

기자) 네. 미시시피 주 의회가 6월 28일, 주기에서 남부연합군 상징을 삭제하는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처리했습니다. 하원에서 찬성 91대 반대 23, 상원에서 찬성 37대 반대 14로 잇따라 가결됐는데요. 미국 곳곳에서 진행 중인 '남부연합 상징 철폐' 운동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미시시피 주기가 어떤 모습이고, 거기에 들어간 남부연합군 상징은 뭔지, 먼저 살펴보죠.

기자) 네. 미시시피 주기는 맨 위쪽에 파란색, 가운데 흰색, 아래 붉은색으로 된 삼색기인데요. 상단 왼쪽에 남부연합군기의 문양이 삽입돼있습니다. 붉은 바탕에 푸른 사선이 엇갈려 있고, 사선 안에는 남부연합에 참가한 주들을 상징하는 하얀 별 열세 개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 부분을 없애거나 다른 문양으로 교체하자는 논의가 최근 활발해졌습니다.

진행자) 그런 논의가 활발해진 이유가 뭘입니까?

기자) 지난달 발생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 때문입니다. 미네소타주에서 플로이드 씨가 경찰의 '목 누르기' 제압을 당하고 숨진 뒤, 항의 시위가 전국에서 벌어졌는데요. '조직적인 인종차별' 철폐 요구와 함께, 곳곳에 남아있는 남부연합의 상징을 없애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진행자) '남부연합'이란 어떤 걸 말하나요?

기자) 남북전쟁 때 연방정부에 맞섰던 남부 주들의 모임이 '남부연합(Confederate States of America)'입니다. 연방에서 탈퇴하겠다고 하며 자체적으로 대통령도 뽑고 헌법도 제정하면서, 군대도 결성했는데요. 연방을 지켜야 한다는 북부 주들에 맞서, 1861년부터 4년 동안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북부가 승리해서,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남부연합의 상징을 없애자는 요구는 왜 나오는



겁니까?

기자) 남부연합은 노예제도를 옹호하던 쪽이었기 때문입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연방정부의 노예제 폐지 방침에 남부 주들이 반발했던 건데요. 이런 남부연합의 상징물들을 한쪽에선 역사 유산으로 간주하지만, 다른 한쪽에선 인종 차별의 상징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특히 진보 진영과 흑인 사회, 민권 단체 등에서 이런 비판이 높습니다.

진행자) 이런 상징들이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남아 있나요?

기자) 남부연합군 깃발이 쓰이는 곳이 많았습니다. 미 해군이 일부 함상에 이 깃발을 올리기도 했고요. 미국의 대표적 자동차 경주대회인 '나스카(NASCAR)' 경기장에서도 남부연합군 기를 흔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노스캐롤라이나나 조지아, 미시시피 같이, 남부연합에 참가했던 주들에 가보면, 일부 주택에도 이 깃발이 게양돼 있는데요. 미 해군과 '나스카' 측은 최근 이 깃발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깃발 외에 남부연합 상징물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여러 사적이 남아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남부연합 지도자들의 동상인데요. 앞서 버지니아주 정부가 주도 리치먼드에 있는 남부연합군 총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의 기마상을 철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포트 브래그(Ft. Bragg)', 텍사스주의 '포트 후드(Ft. Hood)'같이, 남부연합군 장성들의 이름을 딴 미군 기지 10곳을 개명해야 한다는 여론도 변했는데요. 남부연합 지도자들뿐 아니라, 일부 역대 미국 대통령이 기념물까지, 철폐 요구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진행자) 역대 미국 대통령, 누구의 기념물에 철폐 요구가 나오나요?

기자)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전 대통령과 앤드루 잭슨 전 대통령, 그리고 우드로 윌슨 전 대통령 등입니다. 과거 흑인 노예를 소유했거나, 인종 분리 정책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인물 들인데요. 시카고에선 워싱턴 전 대통령 동상에 ‘노예 소유주’란 낙서로 훼손되는 일이 있었고요. 수도 워싱턴 D.C.에선 잭슨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하려는 시위대와 경찰이 맞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이비리그(Ivy League)’ 소속 명문 사학인 프린스턴 대학교는 국제관계대학원과 기숙형 대학 명칭에 들어있던 윌슨 대통령 전 이름을 빼기로 26일 결정했습니다.

진행자) 프린스턴 대학교의 결정 사항, 자세히 들여다보죠.

기자) 프린스턴이 운영하는 국제관계대학원 이름이 ‘우드로 윌슨 공공국제문제 스쿨’이었는데요. 앞으로 ‘프린스턴 공공국제문제 스쿨’로 부르게 됩니다. 또 기숙형 대학 이름이 ‘윌슨 칼리지’였는데요. ‘퍼스트(First) 칼리지’로 개명했습니다. 윌슨 전 대통령은 프린스턴대 총장을 지낸 뒤 뉴저지 주지사를 거쳐, 대통령에 선출됐는데요. 총장 시절 흑인 학생들의 입학 금지하고, 대통령 재임 중에도 인종 분리 정책을 지지한 사실이 부각돼 비판받았습니다.

진행자) 다시, 남부연합군 상징을 주 깃발에서 없애기로 한 미시시피주 이야기로 돌아가죠. 주 의회 결정대로 이제 시행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법안이 넘어오는 대로 서명해서,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테이트 리브스 주지사가 표결 전날(27일) 밝혔습니다. 앞서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겠다”고 말한 데서, 한층 적극적인 태도로 바뀌었다고 AP통신이 평가했는데요. “1894년에 제정된 깃발을 놓고 벌어지는 분열적 논쟁을 이제는 끝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리브스 지사는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1894년 이후 이 깃발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됐다는 이야기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1894년 당시 주 의회에 있던 백인우월주의자(White Supremacist)들이 흑인 정치력이 커지는 걸 우려해서 이런 주기 도안을 확정했던 건데요. 그 뒤로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001년에 도안 변경 여부를 놓고 주민 투표가 실시됐지만, 그대로 유지하도록 결론이 났었는데요. 이번엔 플로이드 씨 사건으로 여론이 크게 바뀌면서, 공립대학과 시청 앞에 주기 계양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진행자) ‘백인우월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기자) 인종차별을 옹호하는 일부 극렬 집단을 가리킵니다. 몇 년 전 버지니아주 샬러츠빌 시내 버지니아대학교에서 집회를 열다가 폭력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1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당하는 인명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우월주의자들이 애용하는 ‘화이트 파워(White Power · 백인의 힘)’라는 구호가 담긴 동영상을 트위터에 재전송해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역사회

총격으로 번진 오냐테 동상 철거



지난 6월 15일 알버커키 박물관 앞에 세워져 있는 오냐테 동상을 철거하려고 시도한 시위대와 동상을 보호하려는 단체가 대치하는 과정에서 시위대를 겨냥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이 총격으로 시위대 1명이 중상을 입었고 경찰은 총을 쏜 스티븐 레이 베커와 무장 남성들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알버커키 시 당국은 오냐테 동상을 우선 현장에서 철거하고, 향후 처리 방침을 논의하기로 했다.

후안 드 오냐테는 1598년 뉴멕시코를 정복하여 스페인 개척자들 산타페와 리오그란데 주변 지역에 정착 시켰었다. 스페인계 사람들에게는 역사적 인물로 기억되겠지만 뉴멕시코 정복 과정에서 이곳 푸에블로 원주민을 잔인하게 억압한 사실로 인해 원주민에게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논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자들의 나오는 동영상에 재전송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화이트 파워’를 외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우월주의자들의 주장을 옹호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공화당의 유일한 흑인 상원의원인 팀 스콧 의원도 “당장 그것(동영상)을 내려야 한다”고 비판했는데요. 결국 몇 시간 만에 해당 동영상은 삭제됐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우월주의자들을 옹호한 겁니까?

기자) 단순한 실수였다고 백악관 측은 해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영상에서 그 발언을 듣지 못했다”고 저드 디어 백악관 부대변인이 밝혔는데요. 하지만, 정가에서 비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백인우월주의자들은 뿌리뽑혀야” 할 집단이라며, “미합중국 대통령이 옹호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28일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

칼럼

에티오피아 선교 파송예배



김기천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그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던 김광철 교수가 7월 1일에 갑작스럽게 에티오피아로 떠나게 되었다. 물론 떠날 줄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내심 그래도 7월 한 달은 알버커키에 더 계실 줄로 생각했었다. 그래도 선교적 사명감을 가지고 떠나는 것이기에 교회에서는 지난 주일(6월 28일) 선교사 파송식을 예배 중에 가졌다. 알버커키에서 목회하던 지난 16년 동안 처음으로 있는 선교사 파송식이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참석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영상 참여와 함께 온 교회의 축복을 받으며 은혜스럽게 선교사 파송식을 마쳤다.

김광철 교수는 에티오피아에 세워진 명성 의과 대학(mmc-edu.net) 학장으로 가는 것이다. 직위는 학장이지만 모든 경비는 자비로 충당해야 하는 자비랑 학장인 셈이다. 명성 의대는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세워진 사립 의과대학으로 의예과 2년과 본과 4년 과정이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학교 학장 Roger Holland박사를 비롯한 운영진이 학교를 떠나게 되면서 어려워진 학교 운영을 떠맡게 되었다. 당장 새 학기 학생들도 모집해야 하고 교과 과정들도 정립해야 하기에 서둘러서 에티오피아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명성 의대는 한국에 있는 명성교회에서 한국 전쟁 때에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군인을 보내준 에티오피아에 세운 학교이다. 정부에서 토지를 제공할 터이니 병원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해서 병원을 세웠는데 이후에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의과대학을 세워서 2년 전에 첫 졸업생들을 배출했다. 에티오피아의 인구는 1억 명이 넘는데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의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에티오피아는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지역에서는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몇 시간을 걸어서 마실 물을 길러 다니곤 한다.

현재 명성 의대는 학장과 부학장의 공석으로 인한 행정적인 공백뿐만 아니라 그동안 누적되어온 재정적인 적자와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학생들의 강제 휴학 등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대부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나서지 않으려는 이 때에 더구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 학교로 들어가려면 쉽지 않은 결단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과 질병으로 고난 받고 있는 에티오피아 국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라는 선교의 사명을 품고 떠나는 것이다. 김광철 교수는 의과 대학에서 학생들을 영적으로로는 기독교 복음으로 사회적으로는 능력 있는 의사로 교육시키고자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떠난다. 특히 시골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도 의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리길 소망한다.

김광철 교수는 올해 나이가 73세이다.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고 1974년에 미국에 와서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약리학 박사를 취득한 후 1985년부터 보스턴 의대, 메릴랜드 의대, 템플 대학 의대, 아리조나 의대에서 33년 동안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했었다. 종신직 교수 생활을 하다가 2년 전에는 사표를 내고 에티오피아 선교를 떠났었다. 선교를 마치고는 본인 집이 있는 알버커키로 돌아온 후 2019년 3월 10일부터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에 등록하여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다. 알버커키와 인연을 맺은 것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신약 개발을 위해서 알버커키에 있던 러브레이스 호흡기 연구소(Lovelace Respiratory Research Institute)에서 일을 했기 때문이었다.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은 김광철 교수와 한영숙 집사 부부를 위해서 온 교우들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격려하여 에티오피아에 선교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길 소망한다. ■

에티오피아 (Ethiopia) 소개

면적: 1,104,300km² (27위)인구: 1억240만명(13위,
2016년 통계)수도: 아디스아바바
(Addis Ababa)
(인구:338만명, 광역인구:457만명)
해발 7,700ft 고원지대에 있는 도시

국기

한국과의 관계:

한국전쟁때에 파병국가이다.123
명의 전사자와 536명의
부상자를 냈다.
현재 남북한 동시수교국이다.종교: 기독교국가로 정교회
43.5%, 이슬람교 33.9%,
개신교 18.6%

다시 일어서는 힘

이정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수필가



새해 초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보낸 이메일에는 사람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다섯 가지 동물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동정심을 유발하는 나무늘보, 용기를 북돋는 고양이, 혁신을 암시하는 독수리, 이타주의를 가르쳐 주는 개,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상징하는 돼지이었다. 그 중에서도 어린 돼지는 뒷다리 대신 바퀴를 두 개 달고 있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인생을 살아간다.” 는 말을 남겼다. 삶은 분명 신이 내린 선물이지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저 행복하게 살다 가는 사람은 없다. 한 세상 잠시 다녀가는 동안 누구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다. 때로는 깊고 끝이 없는 괴로움도 겪어야만 하기에 선인들은 삶을 바다에 비유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에게에는 시련을 극복하고, 고난과 싸우고, 역경을 이겨 내는 힘이 있다. 그 힘을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힘’ 이라고 부른다. 이전의 상태를 되찾거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힘이며, 복원력이라고도 한다. 고통스러운 삶의 질곡에서 온 세상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절망 상태에서도, 참고 배겨 낼 수 있게 해주는 힘이다.

미국에서는 근래에 대재앙이었던 9.11테러에 태풍 카트리나 그리고 심한 불황을 연이어 겪는 동안, 다시 일어서는 힘이 인기를 끄는 연구의 주제가 되기도 했다. 연구의 결과, 그 힘은 유전되며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떤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마음에 크고 깊은 충격을 주는 체험 즉 정신적 손상을 입고도 아픔을 덜 느끼는데, 손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아픈 감정의 영향을 덜 받도록 그 유전 인자가 보호해준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하여 당연히 더 강한 복원력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다른 모든 행위와 마찬가지로 다시 일어서는 힘 역시 배워서 몸에 익힐 수 있다고 말한다. 역경을 딛고 깨끗하게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에게서는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그들은 어려움을 이기기 위하여 남의 도움을 받는다. 매사에 낙관적이며, 대부분이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다. 마치 어린이들처럼 주어진 삶을 즐기며, 베푸는 일을 생활화한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에 매달리는 대신, 자신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다. 절제된 식생활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어려움을 피하려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바람에 휘어지는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다.

고무공처럼 곧바로 다시 뛰어오른다. 자기 안에 존재하는 힘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외부의 모든 자원을 끌어 모아 앞으로 나아간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경우든, 삶을 바꿔야 할 만큼 심각한 진단 결과든, 참담한 경제적인 타격이든, 새로이 맞닥뜨리는 모든 현실에 부합하게 미래의 기대치를 조정한다. 그들은 결코 오랫동안 산산이 부서져 있지 않는다.

다시 일어서는 힘은 한국인의 주요한 특성이라고 일컬어진다. 한국인의 그 힘은 이미 실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코 헛말이 아니다. 더 큰 땅덩이를 가진 나라 더 많은 자원을 가진 나라들이 많은 가운데, 분단의 고통까지 안고 있는 우리의 경제는 지금 세계 10위권에 들며,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우리의 화물은 미국, 중국, 일본, 칠레에 이어 5위에 달한다. 국내외의 전문가들이 예외 없이 우리 나라가 전 세계를 강타한 경제 위기를 가장 빨리 벗어났다고 평가한 적도 있다.

다시 일어서는 힘은 인간의 본질이다. 인간을 용감하게도, 위대하게도, 영원하게도 만드는 힘이다. 인류의 위대한 역사는 그 힘이 만들어 낸 결과이다. 나는 초년 고생은 은을 주고라도 산다는 속담이며,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법이라는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랐다. 평생을 살면서 남 못지 않은 어려움도 겪었지만, 다시 일어서지 못할 만큼 큰 일을 당하지는 않았음에 감사한다.

이메일에 소개된 동물들은 돼지만 빼고 모두 정상이었다. 새끼 돼지를 따로 보여 주는 짝막한 비디오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몹시 애처로운 녀석의 상태가 다른 동물보다 훨씬 더 큰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한 조치이었음에 틀림없다. 바퀴 둘을 달고 손살같이 질주하는 모습이며, 고무 젓꼭지를 허겁지겁 빠는 모습이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었다.

곧바로 내 눈앞에 다른 장면이 겹쳐졌다. 시골집에서 보던 새끼 돼지들이다. 그때 우리집에서는 몇 가지 동물을 거두고 있었는데, 새끼 돼지들이 제법 자라서 우리 밖으로 나와 마당을 해매기 시작할 무렵에 맞추어 주변에 황토를 깔아 주고는 했다. 여기저기 쏘다니다가 가끔 황토를 핥던 녀석들의 모습이 선히 떠오르는 것이었다. 황토는 성장 속도가 빠른 어린 돼지에서 가끔 나타나는 철분 결핍증을 예방해 주는 단방약으로 사용되었다.

이메일에는, 당신의 자식들이 역경에 처하여 어려울 때 앞다리 둘 밖에 없는 이 다부진 녀석의 얘기로 다시 일어서도록 격려해 주라는 설명도 들어 있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겨 내지 못할 일은 이 세상에 없다고 가르치라는 당부였다. ■

사랑하는 아버지키형제 여러분께!

마침 하늘에서 빗방울이 주룩주룩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 속에 가득한 회개의 마음이 눈물되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저희들도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이한 현상속에서 어렵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Corona virus로 인해 13,000명이나 되는 사망자가 뉴저지 주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 잔인한 바이러스의 위세는 아직도 꺾이지 않고 하루 평균 사망자만도 30여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참으로 형언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었습디만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바이러스 앞에서 부들부들 떠는 나약한 존재임을 새삼 느끼는 요즘입니다.

인류 최대의 축제중 하나인 올림픽도 연기시킨 이 바이러스는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 경제를 마이너스 성장토록하여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 지는 빈부 격차와 인종차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간 주님의 은혜로 200여년 누렸던 이 나라의 영화와 찬란했던 리더쉽은 커다란 수직으로 추락 될 것입니다.

미국 국민의 자부심이 최근 6년간 계속 떨어져 20년만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대 유행에 따른 미흡한 보건대책,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경제 불안정, 좀처럼 위험 수위가 낮아지지 않는 인종차별등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미국 국민의 자존감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 1차, 2차 대전 직후까지 하늘을 찌르던 'American High'는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도대체 그 원인은 무엇 때문입니까? '가치 혼돈' 때문 입니다. 이 축복받은 나라 건국 당시의 최고 가치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국가 지도자들로 부터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 까지 그 존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이 인간이 추구할 최고의 가치 였습니다.

가정은 물론 학교에서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쳤고, 그 고귀한 말씀으로 교육받은 학생들은 국기계양대 앞에 모여, 마음 쏟아 회개하며 기도 하는데 열중했었습니다. 국가 최고의결기관인 국회는 반드시 기도로 시작했고, 대통령이 사안을 결정할때는 하나님께 먼저 여쭙어 보았습니다. 세계대전에 참전할 그 당시에도 'Willson 대통령'은 깊은 기도속에서 공표하기를, '이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전이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해야 할것' 이라고 천명했던 것입니다. 실로 거룩한 백성다운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개인이나 국가가 기울어질 때는 어김없이 가치의 혼돈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가치의 기준이 자기 Ego에 있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이상들에게 가치를 부여하여 거리마다, 가정마다 허위, 허영, 허무가 가득차(시 20편) 그 생명없는 것들을 절대화, 이상화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인간들이 뒤틀린 가치관을 갖게되고 그로인해 개인, 가정, 사회및 국가가 부패하면서 멸망의 순서를 차례차례 밟아 가는것 입니다.

나정용

뉴저지연합감리교회
은퇴 감리사



그렇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결국 '가치의 문제' 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나 핵폭탄과의 전쟁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찾는 그야말로 삶과 죽음의 전쟁을 치루고 있는 중임을 명확히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저는 이번에, 같은 노인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이웃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맥없이 죽어 넘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마리의 참새가 한 앓씨리온에 팔리지 않더냐? 그렇게 하찮은것 하나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도 하늘 아버지의 뜻 없이는 되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이 엄청난 현실에 저는 말씀이 막혀 하박국 선지자 같이 주님께 앞드려 끝없이 여쭙고, 또 여쭙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런 무서운 전염병 이옵이니까? 저희들이 거룩을 추구하기 보다 자기행복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 입니까? 주님의 개입을 거부하고, 나 중심의 삶을 고집하기 때문입니까? ----- 고요속에 앞드려 있는 저에게, 징계가운데 에서도 한량 없으신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께서 물이 바다덮음 같은 말씀이 임 하시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죽은 자들이 너희들 보다 죄가 더 많았기 때문 인줄 아느냐? 너희들에게 가슴치며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 이 로다. -----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준엄하신 음성이었습디다.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자비로우신 그러나 태풍소리 보다 더욱 하늘과 땅 전체를 감싸는 음성 이었습니다.

'원인'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해결책'도 '회개'밖에 없다는 말씀 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지금은 가슴치며 회개에 몰입할 때 입니다. '나'의 현재실존의 민낯을 숨김 없이 적나라하게 들추어 낼 때 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에게 닥아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아를 선택하라'고 유혹 하던자, 사탄의 속삭임에 '나' 또한 넘어져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 합시다. '내'가 살고 싶은데로 살아서 내 자아가 추구하는 행복을 획득하고 말리라 -는 교만과 무지를 회개 합시다. 자기의 의를 내세워, 마치 자신이 자신의 구주가 된 양, 자신의 주인 노릇 하고 있는 추악한 모습도 회개 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 자리에 스스로 올라있는 '나'의 절망적인 모습을 회개 합시다. 그간 충성했어도, 도덕적인 삶을 살았어도, 명분이 뚜렷하고 분명했어도, 그것은 최고의 최악된 삶이란 것을 깨닫고 가슴치며 회개 합시다.

죄의 삯은 사망이라 엄히 말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대수롭지않게 범했던 미련한 모습을 회개합시다. 세속적 갈망을 추구하

꼼짝 마



나정자
연합감리교회
은퇴 감리사 사모/ 수필가

작년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었다는 우한폐렴이 이제는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이라는 이름으로 여기 미국까지 들어왔구나 했더니 어느새 온 지구촌을 스물거려 다니는 팬데믹입니다. 뽕! 팡! 터지는 대포전쟁보다 더 을씨년스런 전염력으로 감히 우리의 삶을 조이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단단히 멀쩡한 입 코를 마스크로 덮어 씌워야 하는가 하면, 사람과 사람사이는 6취트 (2미터) 이상 간격으로 떨어져야 하는 social distancing 이라는 초문의 신사도(?)가 느닷없이 세상질서를 잡는가 하면 또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는 어느 누구의 방문도 불허한다는 ‘방문 불가’ 공지로 도배되는가 하면, ‘그로서리나 약국 출입도 불가’ 가 여기저기 마치 ‘방콕! 꼼짝마!’ 를 부르짖듯 하는 희한한 세상 입니다.

거리엔 식당이나 찻집까지 모두 셔터를 내렸고, 물결치듯 지나던 사람도 자동차도 사라져 항상 분주하던 거리는 불꺼진 인적드문 정지된 세상, 적막강산입니다.

눈 뜨면 공튀듯 뛰쳐 나가던 직장도 기한을 알 수 없는 자택근무요, 재잘재잘 우랑광광 아이들 학교도 기약없는 휴교요 온라인 클래스로 집 복을 강요당하는 어처구니 입니다.

뿐이라. 이제는 분간없이 불충했던 우리의 죄과를 옹드려 자복하며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치 않겠다고 뜨끈한 눈물 쏟으며 제단아래 무릎을 꿇겠다는 작은자들의 성전 출입마저 제지당하는 세상. 세상 마지막까지 지켜져야 할 준엄한 예배가 이런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전염력에 제재를 당한다는 게 여간 수치스럽고 슬픈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교회! 여호와께서 자기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처소 - 교회인 것을! 그런중에 온라인 영상으로 부활절 예배도 드려야만 했습니다. ‘주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를 믿는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아멘 아멘-’

아직 풀벌레들 조차 잠 든 고요한 새벽!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오염시켜 왔던가! ‘나쁜(bad)’ 이란 말의 어원은 ‘나 뿐(only me)’ 에서 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에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저 많이 또는 작은 것일지라도 ‘오직 나만’ 을 지키려는 의식이 결국 오늘 같은 ‘꼼짝마’ ‘떨어져’ 식의 분리행태를 태동케 한것이 구나 싶습니다.

그렇게 세세하게 가르쳐주신 말씀질서에서 우리는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 다급히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정리해야 할 일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라 했던가.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구나 싶습니다. 이제는 도리없이 이 땅을 정화해야 할 때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수 있느니라(눅18:27)’ 불현듯 이 말씀이 떠 오릅니다. ■

<알버커키형제 여러분께!> 16페이지에서 계속

기 위해 마침내 거룩한 궤도를 이탈하여, 피격당한 전투기같이 지 그재그로 추락하고 있는 불성 사나운 나의 영적 상태를 회개합니다.

마치 성령의 뜨거운 불이 내 마음속에서 꺼져 있는 자같이 싸늘하게 식어, 삶에 활력이 없고 매사에 무능력하게 되어, 살아 있다는 이름만 있고 실상은 죽은자같이 이미 받은 파수꾼의 사명(겔 3:17) 까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모습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여! 너희에게 징계없으면 사생아라 (히12:)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악의 바이러스로 멸망당하지 않도록 코로나바이러스로 징계를 주신 것 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그 분은 우리가 멸망의 길을 계속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으로 징계하십니다. 말로 듣지 않으면 치십니다. 그

래도 쇠심줄같은 고집으로 회개치 않으면, 목덜미를 잡아 끌어서라도 회개와 순종의 복된 자리까지 끌내 인도하시고 맙니다. 참으로 우리같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사랑에 감격할 뿐입니다. 어린아이는 모릅니다. 싫다고, 귀찮다고 투정을 부릴뿐입니다. 어른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 엄청난 은혜에 감사의 눈물을 흘릴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자매여! 지금 당하고 있는 징계는, 우리에게 필요한 시험이요, 기회입니다. 이 고된 훈련을 통과하고 나면 거룩한 순종자로 다시 태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처해 있는 광야가 거룩한 장소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에게 고난은 불행도 실패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시련의 불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벧전4:12) 거룩한 자녀되도록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시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영어이야기 9



이상목

전직 교수

아마추어무선사(K7MOK)

사회적 거리 두기인 social distancing과 stay-at-home정책으로 우리는 아직도 친교활동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직업을 잃은 사람도 많고 자영업자들도 심신이 편치않아 시름이 깊은 이때, COVID-19이 줄어들 기미는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옆친데 댁친격으로 경찰의 용의자에 대한 과잉행동으로 야기된 폭력사태로, 갑갑하던 마음의 분노가 표출된 점이 있다해도, 지금처럼 나라의 장래가 염려되는 시점에 서있긴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게가 Reopen을 한다해도 상당기간 그전처럼 정상으로 돌아오기 까지는 시일이 꽤 걸릴것으로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가 사는 New Mexico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역이지만, 불편함이 언제끝날지 모릅니다. 오늘은 필자의 결혼기념일(anniversary)인데, 원래는 Las Vegas에 가기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근처 식당에서 pick up해온 음식으로 지내게되었습니다. 이발소도 문을 닫았기에, 가지고있던 clipper로 벌써 3번이나 제머리를 깎았더니 지금은 이발사 못지않습니다. wife머리도 대강 잘라주었습니다. Rio Rancho에 있는 senior center인 Meadowlark center는 모든 프로그램이 중지되어 금요일 country music에 맞추어 춤도 못추게되어 그동안 익힌 line dance도 step을 다 잊어버린것 같습니다. 다행히 점심을 제공하는 meal site는 음식을 포장해서 주차장에서 drive-thru로 pick up하여 집에가서 점심을 들수있습니다. 가끔 local restaurant에서 제공한 점심이 나오기도 하고, Bibb lettuce나 tomato, radish등 grocery나 farm에서 기증한 채소류도 텃으로 나옵니다.

Coronavirus로 확진이 되어도 집에서 격리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집에서 돌보아야 하는데, 간호하는 가족은 환자를 돌봄과 동시에 자신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질병예방처인 CDC(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 의하면, 첫째, "Separate bedroom and separate bathroom." 환자의 침실과 화장실을 따로쓰라고 하지만, 여분의 화장실이 없을시에는 환자가 사용후 깨끗이 닦음은 물론 창문도 열고 환기통도 돌려 air circulation(공기순환)을 잘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두번째는, 환자의 체온을 아침 저녁으로 두번재어, 화씨 100.4도가(정상체온은 화씨 97~98도) 넘으면 일단은 Tylenol, Advil, Aleve같은 약으로 열을 내리게 합니다. 온도(temperature) 이야기가 나온김에 섭씨와 화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섭씨(Celsius)를 사용하는 우리나라에서 화씨(Fahrenheit)를 사용하는 미국에 오게되면 처음엔 온도에 실감이

나지않던 기억이 있을줄 압니다. 섭씨를 예전에 학교 다닐때에는 영어로 Centigrade로 배웠습니다. 0도와 100도 사이를 나타내었기 때문에, 100을 뜻하는 centi와 경사진 각을 나타내는 grade와 합성하여 100개의 grade즉 degree를 나타냅니다. 100도를 100으로 나눈셈이 됩니다. centi는 100분의 1 뜻도 있어, 1cm는 100분의 1 meter이며, 1 cent는 100분의 1 dollar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후에 섭씨를 고안한 Sweden의 천문학자 Celsius의 이름을 따서 섭씨는 1948년 Celsius로 표기하기로 정하였는데도, 그후 수년간 Centigrade를 사용하였습니다. 화씨를 사용하는 나라는 미국외에 주로 Caribbean Sea(카리브해)에 위치해 있는 Cayman Islands, Belize, the Bahamas와 서태평양 필리핀 동남쪽에 위치한 Palau등이며, 그밖의 대부분의 나라는 미터법(metric system)의 일환으로 섭씨를 사용합니다. 독일의 과학자인 Fahrenheit가 처음 제안해 사용하였는데, 1724년경 대영제국인 영국에서 채택하였기 때문에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도 화씨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쯤 천문학자였던 Celsius가 물이 어는 freezing temperature를 0도로 삼고, sea level에서 물이 끓는(boiling) 온도를 100도로 잡아 10의 배수로 되어 편리한 미터법과 잘 조화되어 많은 나라가(영국도 포함) 미터법과 더불어 섭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섭씨는 처음에는 물이끓는 온도를 0도, 어는 온도를 100도로 삼았는데, 중간에 바뀌어, 지금은 물이 어는 온도를 0도로 삼아 화씨와 같은 방향으로 수은주가 오르락 내리락하여 실용적입니다. 화씨의 기준이되는 0도는 소금물과 얼음을 섞어 제일 차가울때를 0도(0°F)로 정하고 사람의 평균체온을(96도) 가장 높은온도로 정하고 보니 물이 어는 온도가 화씨 32도가 되고 끓는 온도가 화씨로 212도가 되어 과학적인 측면과 실생활면에서 볼때 불편하기 짝이없는 온도표시입니다. 날씨를 알려주는 기상청인 NWS(National Weather Service)도 내부에서는 섭씨를 사용하지만 일반에게 공개할때에는 방송국 기상정보처럼 화씨로 발표합니다. 미국국민의 약 80%가 섭씨로 바꾸는 것을 원치않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는 화씨를 사용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화씨와 섭씨가 같은 값을 가지게되는 온도는 - 40도로, 섭씨 영하 40도는 화씨로도 영하 40도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세번째로는, "Make sure they're hydrated." 탈수가 되지않도록 물을 마시게하고(차나 주스도 괜찮음), 소변도 정기적으로 보게합니다. 소변색깔이 dark-yellow 면, 일단 탈수징조일수도 있습니다. 네번째는, 환자의 핏속 산소용량과 맥박을 재기위한 간편한 기구인 pulse

한국전 70주년

다큐멘터리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 6.25를 기해 개봉

한국전쟁 당시 북한 고아들의 동유럽 이주를 다룬 이 다큐멘터리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이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올해 6월25일 서울에서 개봉했다. <김일성의 아이들>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생겨난 5,000명의 북한 전쟁고아에 대해 이야기한다. 위탁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동유럽 여러나라로 보내진 그들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김덕영 감독은 그 삶의 터전을 직접 찾아가 그들의 역사를 추적했다.



김덕영감독



김덕영의 다큐영화는 외신에서도 일제히 보도되었다. AP통신의 한 차례 보도 이후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를 포함한 7개의 세계적인 언론사들이 영화를 조명하였다. 개봉일, 영화관람을 마친 한 관객은 “이 영화는 물 한 병과 손수건을 필히 지참해야 한다. 보는 내내 너무 목이 매이고 눈물이 났다”고 감상을 밝혔다. 조간제TV에서는 한국영화 ‘기생충’은 못보더라도 ‘김일성의 아이들’은 꼭 보길 바란다. “닥터 지바고” 영화 만큼의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사랑과 전쟁의 아픔이 담겨 있는 서사시라고 평했다.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김덕영 감독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 제작을 성취한 것을 축하한다”고 축전을 보냈다. 해리스 대사는 이 영화가 “전 세계의 관객에게 한반도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영어 이야기 9> 19페이지에서 계속

oximeter를 구비하여 정기적으로 재어 보는것이 좋습니다. Oximeter는 악어입처럼 생겨, 손가락 끝을 집어넣고 산소와 심장박동수(정상치: 60~100)를 잽니다. Oximeter는 산소를 나타내는 oxygen과 잽다는(measure) 의미를 가진 meter 와의 합성어입니다. 산소량은 정상인의 경우, 95~100의 수치를 보입니다. 90이하이면 낮다고 봅니다. 제 집사람이 폐(lung)에 문제가 있어 산소를 공급하는 oxygen compressor에 연결된 튜브를 코에 항상 걸치고 생활하는데, 산소공급을 하지않으면 85이하로 떨어질때도 가끔 봅니다. 산소용량치가 계속 떨어지면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조기경보(early warning)일수 있는데, 계속 떨어지면 의사를 불러야합니다. 다섯번째는, 기침을 억제해주는것이 좋은데, 보통구할수있는 기침억제 사탕은 잘 듣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 잘때 베개를 하나 더엮어 높게해서 자면 night coughing에 도움이 조금 됩니다. 여섯번째로는 환자가 호흡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숨쉬기운동(breathing exercise)을 하도록 돕습니다. 일곱번째는 환자를 돌보는 caregiver에게 쫓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환자(patient)

와 6 feet내로 가까이 있을시에는 둘다 mask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환자의 음식을 치울때에는 장갑을 끼고, 세탁물(laundry)은 hot water로 하고, 손을 자주 씻는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손을 닦을때 hand towel보다는 paper towel을 사용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손이 많이가는 전기 스위치나, 방문 손잡이, 부엌표면등 손이 많이 닿는 곳은 깨끗이 닦고 소독제(sanitizer)로 살균 소독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되었다 해도 감염환자의 약 80%는 집에서 치료받고 회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플때에는 대략 일주일 정도면 병이 낫습니다. Coronavirus 환자는 증상을 잘 살펴보아야 하며, 보통 8~10일 사이에 증상이 최고치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호흡곤란이나 가슴통증을 호소하거나, 입술이나 얼굴이 파래지고(bluish), 기절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갑작스런 발작(stroke)현상이 생기면 지체없이 병원으로 가거나 911을 불러 조치하여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다행히 여러 media를 통해 영상으로, 전화로, message로 안부를 쉽게 접할수있는 시대인 만큼, 희망을 가지고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Stay healthy and safe. Thank you. ■

트럼프 대통령, 워싱턴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워싱턴의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펜스 부통령 등 다른 행정부 고위 인사들도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워싱턴디씨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이어 거수 경례로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예를 표한 뒤 헌화식에 참석한 10여 명의 참전용사들을 한 명씩 만나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헌화식에는 로버트 윌리 보훈부 장관, 데이비드 번하트 내무부 장관과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도 참석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한국에서 열린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식에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I just want to say for all of those brave men and women that fought to keep communism out, thank you. We salute you, you are very special people."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녹화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공산주의를 막아내기 위해 용감하게 싸운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엔 참전국을 비롯해 도움을 준 많은 분들께 우리가 합심해 이룬 성과는 실로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여러분의 승리를 축하한다"고 전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To all of the people that helped so much from the United Nations everybody involved, it was an incredible thing that we all together did and I want to congratulate you on victory."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이날 트위터에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자신의 아버지 사진을 올리며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우리는 특히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궁극적인 희생을 치렀던 사람들을 기억한다"며, "한국전에서 전사한 모든 영웅들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이들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텍스트: 폼페오 장관] "The United States will never forget those from the United States, the Republic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under the United Nations Command who laid down their lives in the name of our shared values of freedom

and democracy."

폼페오 장관은 "미국은 미국, 한국, 유엔군사령부 소속의 다른 국가들에서 온 이들이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인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목숨을 바친 것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텍스트: 폼페오 장관] "The U.S.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OK remains ironclad. The alliance continues to work toward our shared goals of securing peace, stability,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Indo-Pacific."

또 "한국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며 "동맹은 공동의 목표인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한 공통된 목표를 위해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지난 23일 한국전쟁 중 숨진 한국군 유해 147구를 한국으로 송환했던 행사 사진을 올려 군인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미국 보훈부는 25일 로버트 윌리 장관 명의로 VOA에 보낸 성명에서, "70년전 10만명 이상의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공격했을 때 포성이 울려 퍼지면서 대한민국의 고요한 아침이 산산조각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텍스트: 윌리 장관] "Seventy years ago, the Republic of Korea's morning calm was shattered by the roar of artillery when more than 100,000 North Korean troops attacked across the 38th parallel."

이어 "미국과 한국군이 단호한 적에 맞서 나란히 싸웠다"며 "결국 3만 6천명 이상의 미군이 목숨을 바치고 10만명 이상이 부상했다"고 말했습니다.

[텍스트: 윌리 장관] "American and South Korean troops fought side-by-side against a determined foe in punishing elements. And in the end, more than 36,000 Americans would give their lives, and more than 100,000 would be wounded."



한국 전쟁의 두 초상: 장진호 전투와 흥남철수 작전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VOA가 보내 드리는 기획보도,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장진호 전투와 흥남철수 작전에 대해 전해 드립니다. 기자 김동현

겹겹이 끼입은 옷안으로 파고드는 살을 에는 듯한 영하 30도(섭씨)의 한파.

당시 22살이었던 미 육군 7사단 31보병연대 본부중대 소속 레이
몬드 라드케 하사는 조용히 담배에 불을 붙이며, 지난 몇 시간 동
안 전방 지휘초소에서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쉴새 없이 총을
갈기던 모습을 떠올립니다.

동이 트자 어둠이 걷히고 얼어붙은 호숫가 주변에서 베일에 가려
졌던 형체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때 싸
늘한 주검
으로 변한
뽕뽕 얼어
붙은 시체
더미 속에
서 포착된
미묘한 움
직임.



올해 92
세가 된
라드케 예

비역 원사는 VOA에, 70년 전 얼어붙은 주검들 속에서 부상입은
중공군 병사 한 명이 상체를 일으키며 도움을 요청하듯 절규했던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어깨만 으쓱했을 뿐, 이내 얼어 죽도록 그냥 내버
려뒀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라드케 미 육군 참전용사] “When the sun came up then
the Chinese withdrew and we had a lot of dead and dying

Chinese stretched
out across the fro-
zen inlet and all over
the place. And I sit-
ting there smoking a
cigarette, and a Chi-
nese soldier raises up
and he wants help.
He’s probably maybe
50, 60 feet from me.
And I look at him and
I just shrugged my
shoulders...Probably
going to join him in
another day or so.



And he just eventually died. He froze, I guess.”

어차피 며칠 뒤면 자신도 그 중공군 병사처럼 싸늘한 시체가 될

<22페이지로 계속>

<트럼프 대통령.... 20페이지에서 계속>

그러면서 이 날은 자유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날이라며, 그 대가를 한반도에서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 희생된
목숨으로 측정할 수 있지만, 또한 “우리가 한국과 맺어온
유대가 전쟁으로 맺어진 뒤 70년 동안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도
상기시켜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텍스트: 윌리 장관] “This day is a reminder that freedom is
not free—it’s cost can be measured in the lives that were
lost to preserve it on the Korean Peninsula. But it is also
a reminder that the bond we formed with South Korea
remains strong 70 years after it was forged in fire.”

미국 합동참모본부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한국전쟁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3만 7천 명의 미군 병사들이
전사했고 6천 명 이상 실종됐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이들의
희생과 서비스를 기리고 기억한다”고 전했습니다.

[텍스트: 미국 합동참모본부] “During the Korean War, 37,000
U.S. service members perished in theater in defense of
democracy & more than 6,000 remain missing. We continue
to honor & remember the sacrifice & service of these men &
women.”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코리아소사이어티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올린 영상에서, 오늘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한 참전용사들을 절대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이 영상에서, 미국과 한국이
공동의 희생이라는 가치로 동맹을 형성했다며, 이것이 전 세계를
재편하는 노력에 뒷받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 ■

<한국전쟁의 두 초상.. 21페이지에서 계속>

운명이라는 생각뿐이었다고, 당시 심정을 담담히 전했습니다.

1950년 11월 26일부터 약 보름간 유엔군 3만여 명과 중공군 7만여 명이 격돌한 장진호전투의 참전용사를 일컫어 미국에서는 장진의 일본어 발음과 소수의 생존자만 돌아왔다는 의미를 따 ‘초신티’ (Chosin Few)로 부릅니다.

라드케 씨가 속했던 미 육군 7사단 31보병연대는 중공군의 야습으로부터 장진호 서쪽에 포진한 미 해병대 1사단이 완전 포위섬멸되는 것을 막도록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연대장 앨런 맥클린 대령이 숨지는 등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고, 장교단만 90% 이상 전사했습니다.

라드케 참전용사 “별지전투보다 더 혹독하고 절망적” “호수에 얼어붙은 시체 즐비...포로로 붙잡혔다가 탈출”

라드케 씨도 당시 포위망을 뚫던 중 다리에 총격을 입고 부상당한 뒤 중공군에 포로로 잡혔지만, 이내 탈출에 성공했고 수송기로 후송됐습니다.

[녹취: 라드케 미 육군 참전용사] “I talked with a guy at one of the reunions who participated in the Battle of the bulge and he said that it was far worse at Chosin... Battle of the Bulge wasn’t hopeless. East of Chosin particularly was almost a totally hopeless situation. And we were destroyed, you know.”

라드케 씨는 장진호전투가 “2차세계대전 당시 추위 속에서 독일군에 포위됐던 아르덴대공습, 이른바 ‘별지전투’ 보다도 더 혹독했고 절망적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한때 야포지휘소였던 그 곳은 117명의 미국과 영국 해병대 전사자들을 매장하기 위한 장소로 쓰였고, 끔찍 얼어붙은 땅을 파기 위해 불도저까지 동원됐다”

당시 미 해병대 1사단 1대대 중대장으로 복무한 고 에드윈 시몬스 예비역 준장의 회고록 ‘얼어붙은 초신티’의 일부입니다.

지난 2007년 85세로 별세한 시몬스 전 준장은 평균 영하 30도를 밀던 당시 한파는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전역의 동계전투들과 비교해도 미군이 전혀 직면해보지 못한 전장 환경이었다며, 진정한 적은 중공군이 아닌 추위 그 자체였다고 말했습니다.

장진호전투에서 유엔군은 1천29명 전사, 4천582명 부상, 중공군은 3만여 명의 사상자와 4천여 명의 동사자를 낸 것으로 추산됩니다.

결국 유엔군사령부는 중공군에 포위 섬멸당할 것을 우려해 1950년 12월 8일, 장진호에서 철수해 함흥, 흥남 지역으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메이슨 참전용사 “철군 과정도 혹독하고 긴 여정 한명의 피난민이라도 더 구하자는 공감대 있었다”

미 서부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장진호전투 생존자 모임 지회장인 도널드 메이슨 해병대 예비역 중사(90세)는 “혹독한 추위가 엄습했던 철수 당시 길 양 옆으로 유엔군, 중공군 시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녹취: 메이슨 미 해병대 참전용사] “My first impression was the number of casualties of both sides alongside the roads... It was very cold getting assaulted on both sides on the way that long hard trip.”

당시 미군과 함께 자유를 찾아 떠난 피난민은 10만여 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미 해병대 1사단 501mm 박격포 대대 소속 상병으로 참전한 메이슨 지회장은 철수과정에서 민간인들이 한 명이라도 더 빠져나오도록 노력했던 점에 아직도 자부심을 느낀다며, 당시 미군 내에는 공산정권 아래 이들이 겪을 고통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메이슨 미 해병대 참전용사] “We had to take them out. We wanted to get them out. We know what they were going to go through. Shared part of that agony.”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에서 한국학을 가르치는 제임스 퍼슨 교수는 당시 상황을 두고 철수라는 측면에서는 패배지만, 나중에 다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측면에서는 성공한 철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퍼슨 교수] “There were also rumors that the Chinese were killing everyone in their wake including North Korean civilians. And so those rumors also motivated people to make to flee...Technically a defeat because it was a withdrawal. But it was a successful withdrawal that permitted them to fight another day.”

특히 이북주민들 사이에서 중공군이 학살을 자행한다는 소문이 널리 퍼진 것도 대규모 피난이 발생한 배경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유엔군이 적극적으로 피난민을 포용한 대목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도 큰 성공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메리디스빅토리호 14000명 피난민 태워 세계신기록, 러니 당시 일등항해사 “빨리 빨리 표현 현장서 배워”

피난민 1만 4천여 명을 태워 기네스 세계신기록을 달성한 민간화물선 메리디스빅토리 호도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메리디스빅토리 호의 일등항해사였던 제임스 로버트 러니 미 해군 예비역 소장(92세)은 VOA에, 한국영화 ‘국제시장’ 등에서 묘사된 혼란스런 장면은 잘못된 것이라며, 피난민들은 하나같이 침착했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러니 당시 일등 항해사] “We poured in as many people as we could. We knew very little Korean. I remember the Pali Pali (Keep move rapidly)…we encountered with getting the



people aboard Pali Pali at that time, but no special anecdote. People were pleased to come aboard

and they were all great people to come in.”

러니 당시 일등항해사 “덩케르크 철수보다 한층 성숙” “흥남철수 당시 침착했던 한국민이 진정한 영웅”

러니 예비역 소장은 당시 피난과정은 2차 세계대전 초기 프랑스 덩케르크 해안에 고립된 40만여 명의 연합군 철수작전과 비슷하면서도 전혀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러니 당시 일등 항해사] “In a way yes and in a way No. We upgraded under very dire circumstances. The weather was very oppressive. The enemy was closing rapidly on a beachhead and evacuation, I think was somewhat different than that(Dunkirk). As the enemy, communists were closing in rapidly around the port, the ships were trying to get people out as many people as possible. Some what similar to Dunkirk but in a way entirely different. I am not sure how to explain it but we did the best we could and the real heroes were the Koreans.”

혹독한 날씨 속에서 적들이 항구를 향해 포위망을 빠르게 좁혀오는 상황에서 이뤄진 철수가 덩케르크 당시 보다 훨씬 성숙한 측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러니 예비역 소장은 선박들은 최대한 피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 과정에서 침착함을 보여준 한국민들이 진정한 영웅

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존 스콧 로겔 미 해군참모대학 교수는 개인의견을 전제로 전술교리상 적의 추격을 받는 와중에 철수하는 것만큼 어려운 도전도 없다는 관점에서 흥남철수는 영웅적이었다며, 후세가 미국판 덩케르크로 평가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로겔 교수] “I think from a US standpoint, it’s perhaps can be the equivalent of a US Dunkirk. It does deserve …It’s heroic, it’s challenging and obviously retreating and falling back in contact is probably one of the most difficult military operations to conduct.”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은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장진호전투와 흥남철수의 의의를 평가해달라는 VOA의 요청에, 자유를 갈구하며 떠난 피난민을 수용하고자 한 결정이 마지막 순간에 이뤄졌다고,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이들의 목숨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브룩스 전 사령관] “Fortunately, the evacuation was made possible as a last minute decision. And while not sufficient, at least a great number of lives were saved… So this is a reflection of something that may be there even now. Not everyone was able to get out of North Korea. And as we’ve seen defectors through many years, there’s a desire to live free and the North Koreans presently cannot do so. And so is that an indication of what awaits us in the future desire to be free among the people of North Korea? I think that it is.”



흥남철수는 현재와 미래의 북한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으며, 우리 모두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 의지를 가진 탈북민들을 오랫동안 목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지금 북한주민들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미래에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는 징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역사학자들은 장진호전투 당시 유엔군 실종자로 집계된 4천894명 가운데는 포로로 잡힌 이들도 많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수와 일병 심각한 부상 뒤 33개월간 포로 고초 “석방 뒤 몸무게 절반으로 줄어…평생 악몽 시달려”

장진호전투 미 육군생존자모임의 재무책임자 사메인 프랑수와 그리피스 씨는 자신의 부친 제라드 프랑수와도 장진호전투 과정에서 전쟁포로로 붙잡혔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수와 씨의 부친은 당시 일병으로, 미 육군 31보병연대 3대대 지휘관인 윌리엄 라일리 중령의 직속 무전병이었는데, 포로로 잡힐 당시 슈탄트 파편에 얼굴을 맞았고 박격포 파편이 두 다리를

관통했으며, 중공군 병사의 총검에 찔린 상태였습니다.

33개월 뒤인 1953년 8월 마지막 포로교환에서 풀려났을 당시 그의 체중은 77kg에서 31kg으로 줄었고, 당시의 기억 때문에 2012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녹취:프랑수와 그리피스 재무책임자] “He spent 33 months and his body weight went from 170 pounds to 70 pounds... He couldn’t sleep. He had a horrible time sleeping. And so he started a towing company. And so he had calls during the night and he’d get up”

오늘날 장진호전투 미군 생존자들은 모두 90대를 넘겼고, 그 수는 해가 갈수록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메이슨 지회장은 최근 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더 이상 더 나쁜 나라들의 오랜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장진호전투와 흥남철수의 역사적 교훈을 다음 세대가 잇을까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메이슨 지회장은 자신의 세대는 “어렸을 적부터 국가와 세계 평화 수호의 사명을 띠 것을 배우며 자랐고, 다시 참전할 수만 있다면 할 것”이라며 “후회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메이슨 지회장] “I was brought up to believe what we have a duty to our country and to the world to protect it... I had no reason to change my mind why I shouldn’t be there. I thought that was part of my duty as an American citizen is to give back to the country...And I’d do it again if I was younger.”

메이슨 지회장은 참전의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최근 한국을 방문해 눈부신 번영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점을 한국민 스스로가 증명할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

기자 김동현

2020.6.24 3:30 오전



1950년12월19일 흥남부두에 몰린 피난민

‘우리 다시 만날때 까지...’ 팬데믹기간중에 타주로 이사가신 분들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시던 교우 몇분이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중에 타주로 이사하시게 된 분들이 계셨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인사를 드리고 가실수 밖에 없었던 아쉬움, 환송회도 못하고 보내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감광철 교수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파송



한영숙 집사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파송



오상문 성도
박선영 성도
승경 준경
San Jose로 이사



이래희 성도
권해영성도
뉴저지로 이사



Jeniffer Lewis
캘리포니아로 이사



김바울(Paul Kim)
듀크대학 병원 인턴으로 전직



뉴멕시코주 한인 교회 안내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김민순 목사 (505)975-0322
 주일예배 시간: 오후 1:00 pm (예배 후 점심식사 교제)
 어린이주일학교 시간: 오후 1:00 pm
 토요일새벽예배 시간: 7:00 am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87112
 교회 웹사이트: www.galileeabq.com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김재태 목사(972)-822-1239
 주일예배 시간: 10:30 am
 새벽예배및 기도회 : 5:30am(mon-sat)
 금요일예배및 기도회: 7:30pm-10pm
 주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라스 쿠르세스 장로교회 (Las Cruces)

유평산 목사 (915)329-3451
 주일예배 시간: 10:30am
 주소: 200 E. Boutz rd, Las Cruces, NM88005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한인 교회 (Los Alamos, Santa Fe)

김석훈 목사(505)699-4775
 주일예배 1부 시간: 11:30 am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e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church.net

미국장로교 알버커키한인장로교회 (Albuquerque)

이명길목사 (505)730-3614(hand)
 주일예배(2부): 오전 11:00, 영어예배(1부): 오전 9:00
 수요일성경공부: 오전 11:00(사택)13804 Spirit Trail Pl.NE ABQ
 목요일기도회: 오후 7:00
 예배처: 13804 Spirit Trail Place NE Albuquerque, NM 87112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Korean Worship) 11:00 am (Sunday)
 영어예배 (English Worship) 9:45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 11:00 am (Sunday)
 수요일예배 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 5:40 am (Tue-Fri) 6:00 am (Sat.)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umcabq.com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Albuquerque)

윤성열 목사 (505) 331-9584
 주일예배 시간: 오전 9:00 am / 오전 11:00 am
 새벽기도회 5:45 am (Tue-Fri)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7:00 pm
 주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민명희 스텔라 사목회장 / 이성희 요한 총무/기획부장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87110
 소공동체(화,오전), 성령기도회(수,저녁)
 기도회: 매주 토요일 아침 09:00
 장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St. Frances Hall
 Contact : (505)-503-9846
 기도회 회장: 루피나 장경림 자매님
 웹사이트: cafe.daum.net/abq-catholic

주님의 교회 (Albuquerque)

The International Church of the Foursquare Gospel
 김의석 목사 (505) 903-2297
 주일예배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6:00 am (월~토)
 성경공부 매주 목요일 10:00 am(교회)
 *Women's English Bible study 격주 금요일 10:00am
 *English Bible conversation group for young adults and UNM students 매주 일요일 1pm @ church.
 주소: 12120 Copper Ave.NE,Albuquerque,NM 87123

클로비스 한인 교회(Clovis)

이성희 목사 (575-791-1453)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Connelly St. Clovis, NM 88101
 주일예배: 12:00pm 수요일 11:30am
 금요일예배: 7:30pm
 아침기도회: 7:00am(월, 화, 목, 금)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 (505) 453-5461
 주일예배: 12:00 pm (한국어) 1:00 pm (Indian 영어)
 주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알버커키 Albuquerque		식당 Korean Restaurant	식품점 Korean Grocery	자동차정비 Auto Repair
----- 건축/페인트 Painting ----- 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 ----- 공인회계사 CPA -----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 교회 Church ----- 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652-4627) ----- 갈릴리장로교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BQ, NM87112 505-975-0322 -----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601 Tyler Rd NE ABQ (505-803-7716) -----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3315 Tower Rd SW ABQ (505-331-9584) ----- 알버커키한인장로교회 13804 Spirit Trail pl. NE ABQ (505-730-3614) ----- 단요가 Dahn Yoga ----- 알버커키505-797-2211 커튼우드505-792-5111 산타페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이스트마운튼505-286-3535 www.dahnyoga.com ----- 리커스토어 Liquors ----- Casa Liquor 1649 Bridge Blvd. SW (505)247-2525	<p>Kelly Liquors #2 5850 Eubank NE (505)291-9914</p> <p>Kelly Liquors #2 5850 Eubank NE (505)291-9914</p> <p>Kelly Liquors #5 6124 4th St NW (505) 828-1133</p> <p>Kelly Liquors #7 1418 Juan Tabo NE (505)292-4520</p> <p>Kelly Liquors #8 11816 Central SE (505) 299-3366</p> <p>Kelly Liquors #9 1903 Coors SW (505) 873-4477</p> <p>Kelly Liquors #10 4312 Coors SW (505) 877-2777</p> <p>Kelly Liquors #14 6300 San Mateo Blvd NE Suite R (505) 797-9966</p> <p>----- 변호사 Law Firm ----- 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201 Third St. NW Suit 1300 Albuquerque NM 87102 (505)888-1335 jroh@cuddymccarthy.com ----- 부동산 Realtors ----- 김영신 Yong Shin Kim: Prudential Realtors (505-321-7695) ----- 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 세탁소 Dry Cleaners -----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505-266-3231)</p>	<p>----- A-1 한식 Cafe 6207 Montgomery Blvd. NE (505)275-9021 -----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 Asian Pear 8101 San Pedro Dr. NE, Ste D ABQ (505)766-9405 ----- 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899-0095) -----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 Korean BBQ & Sushi 4214 Central SE ABQ (505-797-8000) -----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 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 ----- 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 Tamashi Japanese 6400 Holly Ave. NE ABQ NM87113 (505-717-2457) ----- Yummi Hous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p>	<p>----- A-1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NE ABQ (505-275- 9021) ----- Arirang Oriental Marke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 Salon 47 (황경희 Kay Latham) 5850 Eubank Blvd., NE (505-225-4983) ----- Matthew Lee's Hair Style (홍정희)11901 Menaul NE (505-271-1056) ----- Nob Hill Barber Shop (Sunny 박선희)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p>	<p>----- The Garage 자동차 정비 6441 western Trail NW (505-352-5152) 마이크 조 thegaragenm.com ----- 주택용자 Loan Officer -----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 중재서비스 ----- ADR-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 ----- 치과 Dental Clinic -----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 NAPA Family Dental Dr. 윤자정 10820 Comanche Rd, NE Albuquerque, NM 87111 ph)505-323-7700 ----- 호텔 Hotel ----- The Ambassador Inn (조영자) 1520 Candelaria NE ABQ NM 87107 505-345-2547</p>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태권도 TaeKwonDo

Dynamic taekwondo
academy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505)
271-2000

한 의사 Acupuncture

Dr. Chang: (장상순)
2917 Juan Tabo Blvd. NE
#B, ABQ, NM87112
(505-255-0878)
sangsoonc@gmail.com

Dr. James D Park: (박달규)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6 87113
(505- 797-5400)
East West Integrated Pain
& Rehab Center

화원/원예 Nursery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라스베가스
Las Vegas**

치과 Dentist

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 DDS
(윤종석)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공인회계사 ACC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
5800)
(Fax 575-523-7700)

카페/ 선물 Cafe/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
0098)

교회 Church

라스크루세스 침례교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전화번호(972) 822-1239

병원 Clinic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3850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22-4646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미장원 Hair Salon

차진주 헤어(Peal's Place)
800 Trinity #E
Los Alamos
(505)412-5294

교회 Church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699-4775

**리오란초
Rio Rancho**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8855)

**로스루나스/벨렌/
버나리요/보스키팜
Bernalillo/Belen/Bosque
Farms/Los Lunas**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408 Hwy 550W, Bernalillo,
NM87004
(505) 867-5838

Kelly Liquors
300 N Main st.
Belen, NM87002
(505) 864-2242

Kelly Liquors
395 Bosque Farms Blvd.
Bosque Farms, NM87002
(505) 916-5656

치과 Dental Clinic

Los Lunas Smiles Dr.윤자정
219 Courthouse rd.
Los Lunas NM87031
(505-865-4341)

**산타페
Santa Fe**

손톱미용 Nails

Tiffany Nails(윤성희)
410 Old Santa Fe Trl. #E
(505)982-6214

변호사 Law Firm

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87502
(505)988-4476
jroh@cuddymccarthy.com

**한국 식당
Korean Restaurant**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베이커리 Bakery

베이커리 B&B(양성권)
38 Burro Alley
Santa Fe, NM87501
(213)369-1604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De Arco Liquor
(@Solana Center)
915 W. Alameda St.
Santa Fe, NM 87501
(505) 954-1399

Kelly /Liquor Barn
2885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960

Kelly Liquor
4300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206

교회 Church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87501
(505)699-4775

**클로비스
Clovis**

교회 Church

클로비스 한인 교회
Korean Full Gospel Church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91-1453)

식당 Restaurant

Bokka 레스토랑(한식)
(박창문, 박미란)
1708 Prince St.
Clovis, NM 88101
(575)-763-2262

Shogun Japanese Steak House
600 Pile St.
Clovis, NM 88101
(575)762-8577

식품 Korean Grocery

K's Oriental Food Store
921 Main St.
Clovis, NM88101
(575)762-8660

치과 Dentist

KidsKare PC Family Dentists
600 Texas St.C
Clovis NM88101
치과의사:박요셉-Sherry 부부
(575)-762-1900

**화밍톤
Farmington**

교회 Church

화밍톤 침례교회: 511 W. Ar-
rington, Farmington (505-453-
5461)

상점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New Mexico
2020년7/8월호
발행일 : 2020.7.6
발행인 : 김기천 (Rev. Kee-Cheon Kim)
편집부장 : 이경화 (Kyong Hwa Lee)
출판부장 : 권구자 (Koo-Cha Choy)
광고담당 : 신옥주 (Ok-Ju Shin)
발행처: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출판부
Korean UMC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E-Mail : voiceofnm@gmail.com
광야의 소리 원고는 매 짝수달 25일까지 받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독자 여러분의 좋은 글이나 사진을 보내주
시길 바랍니다. (단 정치적인 글은 사양합니다.)

광야의 소리 출판 비용은 광고주의 후원으로
 총당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통한 후원에 관해서는 voiceofnm@gmail.com으로 또는
 (505)275-9021(광고담당:신옥주) 로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A-1

A-1 한국식품
 한국음식카페 CAFE
A-1 ORIENTAL MARKET
 日本の食品
 Mon-Sat 10:00am-7:00pm
 Closed on Sunday
 (505) 275-9021
 Website: www.a1orientalmarket.com
www.facebook.com/a1orientalmarket/
 몽고메리/산페드로 코너
 6207 Montgomery Blvd. Albuquerque NM 87109

The Garage AUTO REPAIR
 30년 경험의 한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소입니다
 2년 연속 엘버카키저널 독자가 선정한 최고의 자동차 정비업소
 문의사항 (505)352-5152

 마이르 조

 근무시간: M-F, 7:00am-6:00pm (토, 일 휴무)
 웹사이트: <http://thegaragenm.com>
 주소: 6441 Western Trail NW Albuquerque, NM 87120

一番
Ichiban
 Japanese Restaurant

 10701 Corrales Rd NW,
 Albuquerque, NM 87114
 (505) 899-0095
 11:00am to 2:30pm (Mon-Sat) for Lunch
 4:30pm to 9:00pm (Sun-Thur) for Dinner
 to 10:00pm on Friday & Saturday

Korean BBQ

& Sushi
 Hours
 Monday-Thursday
 11:30am-2:30pm
 5:00pm-9:30pm
 Friday-Saturday
 11:30am-10:00pm
 Sunday Closed
 4214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8
 phone (505) 797-8000
www.abqsushiandsake.com

R1 NEW MEXICO
 THE FUTURE OF REAL ESTATE

 김영신/부동산중개인
Yong Shin Kim
 505.321.7695
yongshinkim001@gmail.com
www.R1newmexico.com
 505.883.9400